논문 02

저출산의 교육적 파급효과[1)]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과 실천을 중심으로)

반상진[2)] · 정성석[3)] · 조영재[4)] · 강은숙[5)]

요 약

저출산이 교육에 미치는 1차적 파급효과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업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녀 수 감소의 교육적 파급효과를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의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가정배경이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와 자녀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자녀 가구와 세자녀 이상 가구 사이에서 가정배경이 부모의 자녀관여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를 분석했다.

연구결과, 첫째, 가정배경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 및 상담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부모의 높은 자녀교육 관심은 가정에서 교육적 실천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하여 주목할 연구 결과로, 셋째, 한자녀 가구와 세자녀 이상 가구에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 및 상담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한자녀 가구의 부모는 세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보다 자녀교육 관심을 가정에서 교육적으로 실천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한 가구의 자녀 수가 감소해도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그 관심이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실천으로 발현될 가능성에는 영향을 준다는 데 있다. 그리고 자녀 수의 차이에 따라 자녀교육 관심이 실천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교육격차와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I. 서 론

우리 사회의 2012년 출산율은 1.3명으로 한 명의 자녀를 둔 가구(한자녀 가구)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은 고령화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저축률 감소 및 내수시장 위축 등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교육과 관련해서 저출산은 학령인구 감소로 이어져 교사수요 감소, 학교내 유휴시설 증가, 그리고

1)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3S1A3A2043601)"
2)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3) 전북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4)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비전임교원
5)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대학 정원조정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의 문제는 자녀양육・교육비, 고용・소득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과 관련이 깊다(최은영・박영실, 2009; 김준홍 외, 2012). 또한 초저출산율은 경쟁력있고 성공한자녀를 갖고자 하는 오래된 부모의 욕구, 가사일과 양육에 있어 어머니가 주된 역할을 하고 부모자녀 사이의 유대관계가 높은 가족주의 문화, 그리고 높은 성불평등으로 여성이 가사일과 회사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분위기와 관련이 깊다(Anderson&Kohler, 2012).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자녀양육・교육비는 한자녀 이하의 기혼여성(29-30세)이 출산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로 인식된다(대한민국정부, 2011). 그리고 자녀양육・교육비 부담은 자녀를 둘 또는 셋을 낳기 보다는 한 명만 낳아 잘 키우자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다.

저출산은 교육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함의를 내포한다. 예를 들어, 저출산은 부모가 자녀를 둘 또는 셋 이상의 자녀를 낳는 대신 한 명의 자녀를 낳아키우겠다는 의도적 선택에서 비롯된다(최돈민 외, 2013). 이 의도적 선택에는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비 부담의 증가와 교육투자 수익률 감소라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저출산은 가구당 자녀 수가 1명에 가깝게 감소함에 따라 자녀교육을 위한 투자의 집중과 교육적 관심 및 지원의 증가와 관련이 깊다. 다시 말해, 저출산은 부모가 자녀를 한 명만 낳아 교육투자와 관여를 강화하여 잘 키워보겠다는 교육적 의도가 잠재되어 있다.

저출산은 미시적으로 보면, 한 가구 내에 자녀 수가 한 명에 가깝게 감소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저출산이 교육에 미치는 1차적 파급효과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한정된 재화와 시간을 고려할 때, 자녀 수의 변화는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환경조성과 지원을 하는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자녀의 입학 전 교육과 입학 후 가정에서의 부모의 교육적 관여와 사교육투자는 저출산이 교육적 파급효과를 낳는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저출산과 관련하여 자녀교육을 위한 가정에서의 부모의 교육적 관여 수준의 변화를 중심으로 교육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저출산에 의한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의 변화는 부모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교육성취, 대화의 질, 교육비, 교육지원과 관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관여는 자녀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 및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강창희・현보훈, 2012). 그리고 Becker & Lewis(1973)의 연구에서, 자녀 수와 자녀의 질이 부적관계라고 할 때, 한자녀 가구는 자녀 1인당 교육비 투자와 관심 및 기대수준이 다자녀 가구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저출산이 부모의 교육적 관여에 변화를 주고, 그 변화가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저출산에 의한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의 영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으로 학력과 학벌을 중시해 왔고, 자녀의 성공을 위한 부모의 교육열이 높다. 이러한 교육풍토는 부모의 학력이 조금 낮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있어도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심과 지원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최돈민 외, 2003).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하거나 학력이 높은 부모는 학교교육을 자녀의 성공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높은 교육투자와 자녀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Becker의 자녀의 수와 질의 대체관계는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개발도상국에서 자녀 1인당 인적투자가 낮을 때 적용 가능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고 공교육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자녀 1인당 교육투자액 감소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전현배 · 정유선, 2009:3; Maralani, 2008).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 연구는 가정배경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 선행연구물과 다르게, 저출산 현상의 1차적 교육적 파급효과로 예상되는 부모의 자녀교육관여에 주목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배경이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자녀 수의 변화가 부모의 자녀교육관여에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이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출산에 따른 가구당 자녀 수의 감소가 자녀교육 관여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분석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1. 가정배경은 부모의 자녀교육관여(관심 · 실천 · 상담)에 영향을 주는가?
2. 부모의 자녀교육관여는 자녀의 학습(사교육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가?
3. 한자녀 가구와 세자녀이상 가구 사이에서 가정배경이 부모의 교육관여와 자녀의 학습에 주는 영향력의 차이가 있는가?

Ⅱ. 선행연구 검토

1. 부모의 자녀교육관여－교육관심

우리사회에서 학교교육성과는 대학입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학교교육성과에 의해 결정된 대학출신은 노동시장에서 취업과 소득 및 승진 기회의 차이를 낳는다. 이러한 학력학벌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 높은 교육열을 보이며 학교교육성취에 마음을 쓰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은 최소한자녀의 교육경험과 활동에 관한 무지와 방관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involvement 또는 engagement)는 자녀의 학업과 학교생활을 위해 부모가 자녀의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자녀의 부모는 면학분위기조성, 학습점검과 관리, 교육기대, 독서와 대화강조 등의 교육적 관여를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DE, 2002; DCSF, 2008)[6].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관여는 크게 자녀교육을 위한 관심과 실천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관심을 두는 것과 참여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애매한 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관심은 인지·심리적 수준, 참여는 실천행동 수준의 자녀교육관여로 구분한다. 구체적으로 관심은 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마음을 쓰고 주의를 기울이는 인지·심리적 단계를 뜻한다. 그리고 참여는 부모가 자녀교육활동과 관련을 맺고, 자녀교육을 위해 담당해야 할 몫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단계를 의미한다.

우선,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 수준은 자녀의 교육경험과 활동에 대한 이해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는 대체로 자녀의 학교생활과 성적에 대해 잘 알고 있거나 자녀와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는 친구와 친구의 가정환경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또한 학업과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습관과 고민에 대해 이해하고 사전에 이러한 것을 예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와 신념, 교우관계[7], 칭찬과 긍정적 반응, 자녀의 스트레스, 학교생활, 생활습관 등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선숙·고미선, 2007; DCSF, 2008; Lvay& Sand, 2012).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에 관한 정보는 KEEP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업 및 성적, 교우관계, 학교생활, 생활습관, 개인적 고민에 대한 인식 수준을 토대로 측정 가능하다.

2. 부모의 자녀교육관여-교육실천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이 직접 자녀의 학업과 성적향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이 자녀교육의지와 실천으로 연결될 때, 사교육과 같은 자녀의 학교 밖 교육활동이 증가하고 학업성취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교육 실천은 자녀의 학업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인 의지를 포함하는 실천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 실천 행위는 자녀의 학업성취의 정적요인을 강화하고 부적요인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부모는 학업성취에 도움이 되는 학습과 과제 지원, 교육정보 수집과 교류, 사교육 등의 실천행위를 강화하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모는 자녀의 학습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자녀의 불규칙적인 생활습관 및 TV 또는 만화책 보는 행동을 제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하교 후 가정에서 자녀 혼자 보내는 시간을 가능한 줄이고, 자녀의 교육일정과 활동을 관리하는 실천적 행동을 보일 것이다.

---

6) 첫째, 자녀가 일상에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며, 집안 내 학습을 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한다, 둘째, 방과후 학습활동을 점검·관리하고, 학습을 위한 노력과 자기생활 규제를 가치있는 것으로 강조한다. 셋째, 부모는 자녀의 연령과 성숙정도에 맞추어 교육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높지만 현실적인 교육기대를 갖는다. 넷째, 자녀성장과 발전에 관심을 갖고 학업과 학교생활의 발전적 모습을 격려한다. 다섯째, 가족과 의미있는 대화시간을 자주갖고 자녀의 독서활동 후 읽기와 듣기, 토론하기에 참여한다.

7)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친구가 내 삶에 주는 지대한 영향과 교우관계의 중요성을 함의한다. 학교에서의 교우관계는 학생의 학업성적, 건강한 학교생활, 학습시간, 학교폭력노출 등에 영향을 준다(Lvay & Sand, 2012). 따라서 자녀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는 자녀의 교우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교우관계에 대한 관심은 자녀가 만나고 있는 친구와 그 친구 가정배경을 알고 있음을 포함한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모의 자녀교육관여 형태는 학습과제 해결[8], 대화[9], 사교육, 학습시간 관리, 학습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형성, TV시청 또는 게임시간 규제, 학습정보 수집 및 교류 등이 주로 언급된다(MDE, 2002; Davis-Kean, 2005 DCSF, 2008). 이러한 형태의 부모의 자녀교육 실천은 자녀의 높은 학습동기, 우수한 학업성취와 출석률, 낮은 빈도의 학교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언급된다. 특히,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한 학습환경 조성과 직접적인 학습지원은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 실천에 관한 정보는 KEEP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교공부와 숙제 확인, 자녀의 일상 점검과 관리, 정보수집과 교류, 사교육, 건강관리 등의 부모의 자녀교육 실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3. 자녀 수와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 및 실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에서 다자녀는 여성의 낮은 학력과 상관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고학력과 취업률의 증가는 자녀 수 감소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양육·교육비는 한자녀 이하의 기혼여성(29-30세)이 출산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로 인식된다(대한민국정부, 2011). 그리고 자녀양육·교육비 부담은 자녀를 둘 또는 셋을 낳기 보다는 한 명만 낳아 잘 키우자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상식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부모의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은 가구에서 한명의 자녀를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된다(보건복지부, 2011). 이러한 점은 저출산과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의 관계를 분석할 때, 부모의 배경이 자녀의 수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자녀의 수와 출생순서는 부모의 교육투자 결정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대화의 질, 교육활동 참여시간, 자녀의 교육성취기대 등의 차이를 낳는다(Davis-Kean, 2005; Hanushek, 1992). 더불어 자녀의 수와 출생순서는 자녀 개인의 심리와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학습동기와 과정 및 성취에 영향을 준다(강창희·현보훈, 2012). 자녀 수와 자녀의 질이 부적관계라고 할 때, 한자녀 가구는 자녀 1인당 교육비 투자와 관심 및 기대수준이 다자녀 가구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Becker & Lewis, 1973). 다시 말해, 자녀의 수가 적은 가구는 자녀 일인당 교육비를 늘리고, 교육지원의 질과 빈도를 높여 자녀의 교육기회와 성과를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사회는 소득양극화가 심각하며 부모의 과잉교육열에 따른 사교육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자녀양육·교육비가 아이를 한명만 출산해서 키우게 하는 주요 원인으

8)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부모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습과 과제를 직접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녀학습에 대한 부모의 직접적 관여를 과제해결의 도움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다. 한편, 자녀의 과제해결에 관한 부모의 직접관여('direct involvement')는 낮은 시험성적과 관련이 있고, 과제해결을 위한자녀의 자율성 지원('support for children's autonomy')이 높은 성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한다. (DCSF, 200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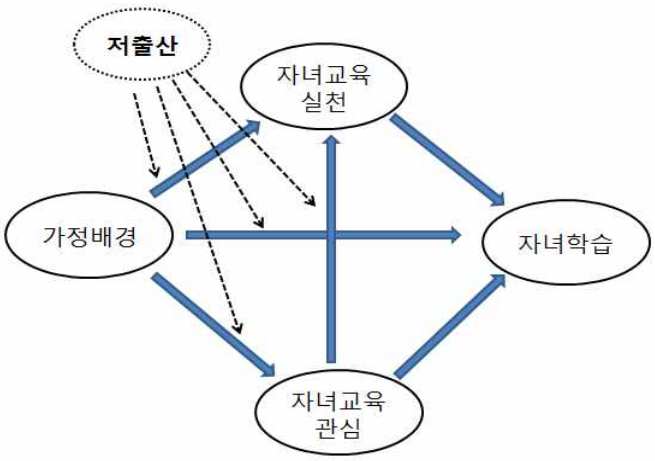
9) 부모가 자녀에 대한 교육관심 수준과 자녀와의 대화시간이 높은 정적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밤 늦게까지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부모와 대화의 시간을 갖기는 자녀의 성적과 부모의 계층에 큰 관련없이 낮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로 인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가 여러 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대신 한자녀만 낳아 잘 키워야겠다는 욕구는 한자녀에게 교육투자와 지원을 집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자녀의 수보다는 자녀의 질을 선택하는 부모를 늘어나게 한다.

학교의 학업성취도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학업성취도가 학생 개인의 지능과 노력으로만 결정되지 않는다.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학생 개인의 속성뿐 만 아니라 부모가 속한 계층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소득, 학력, 직업에 따른 계층의 격차는 자녀교육 관심과 실천의 차이와 무관하지 않다. Lee & Lafortune(2010)의 연구에서도 저소득층은 한자녀의 교육비를 아껴서 다른 자녀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거나, 교육연한이 가장 높은 자녀는 부모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가구의 부모는 생계유지로 인해 사교육투자 여력이 낮고 자녀와 집에서 함께 보내며 교육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유를 찾기 힘들 것이다. 반면, 경제력이 뒷받침 되고 학력이 높은 부모는 자녀의 학교 공부와 숙제를 돕거나 학습관리를 해주기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직업지위가 높은 부모는 사회자본을 이용하여 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그 정보를 활용할 기회가 더 많을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 수의 감소가 자녀교육의 질을 높이는 대체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에 비해 가구당 소득수준이 높고 출산율이 낮으며, 의무교육과 공교육이 발달해 있고,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자녀 수가 두 명 이상 이라고 해서 부모가 자녀교육에 관여하는 수준이 한 자녀일 때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을 단순히 수용하기 어렵게 한다(전현배 · 정유선, 2009:3-4; Maralani, 2008).

이상의 선행연구검토를 토대로 한 가구의 자녀 수 감소가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와 자녀학습에 미치는 경로를 [그림Ⅱ-1]과 같이 설정했다.



[그림 1] 저출산이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 미치는 영향 추정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이 논문은 한국교육고용패널 4차(2007) 자료 가운데 중3코호트 학생과 학부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관심은 자녀 수의 변화에 따른 부모의 교육적 관여이기 때문에, 자녀수가 1명(n=208) 또는 3명 이상(n=532)인 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한정했다.

2. 변인 설정 및 연구모형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연구모형은 4개의 잠재변수로 구성되었다. 가정배경은 가구소득,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구소득은 편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로그값으로 변환한 연속변수형태이다. 부모학력은 미취학부터 대학원 박사까지 9단계를 연속변수의 형태로 투입되었다. 자녀교육 관심 변수와 자녀교육 실천 변수는 <표 Ⅲ-1>과 같이 선정된 리커트 5점 척도의 관측변수 평균값을 연속변수로 활용했다.

<표 Ⅲ-1> 자녀교육 관삼실천변수 구성

변수명	설문문항
자녀교육 관심변수	1. 학업 및 성적에 대해 안다.
	2. 친구에 대해 안다.
	3. 학교생활에 대해 안다.
	4. 생활습관에 대해 안다.
	5. 현재의 개인적 고민을 안다.
자녀교육 실천변수	1. 학교 공부와 숙제에 대해 늘 확인한다.
	2. 모든 일상에 대해 잘 알고 일정관리를 한다.
	3. 자녀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정보교류를 한다.
	4. 자녀 숙제나 교육에 관한 정보수집을 한다.

위의 세 가지 주요 잠재변수 외에 부모의 교육상담활동을 잠재변수로 추가했다. 부모의 교육상담활동[10]은 부모가 자녀의 성적・학습, 진로, 생활에 관한 것으로 구성되었고, 5점척도의 관측변수 평균값을 연속변수로 이용했다. 이 외에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내신등급과 사교육비를 측정변수로 한정했다. 내신등급은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되어 있으며, 1등급을 9점, 9등급을 1점으로 역산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그리고 사교육비는 편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로그값 형태로 투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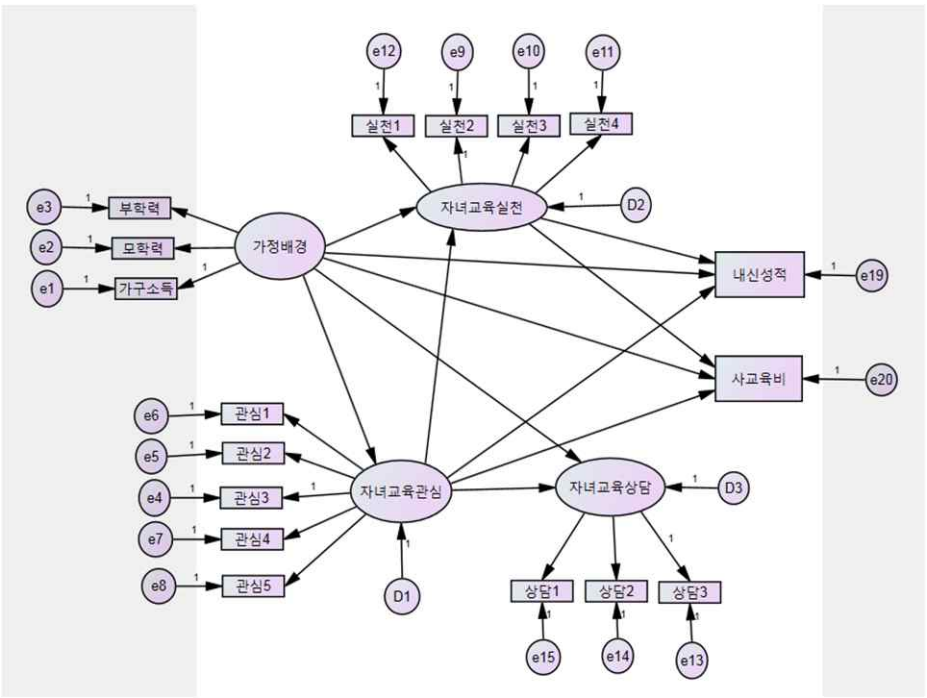
10) 선행연구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습과 진로 및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와 상담하는 참여하는 것은 자녀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석에 이용된 변수에 관한 변수처리와 기술통계 결과를 제시하면 <표Ⅲ-2>와 같다. 부모의 관여를 중심으로 기술통계결과를 보면,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이 3.52로 '보통'과 '그렇다'의 사이에 있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부모의 교육실천은 2.33으로 '그렇지 않다'와 '보통'사이에 있었다.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과 실천의 평균치 차이로부터 부모의 관심이 가정에서 자녀교육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으로 전이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자녀교육을 위한 상담의 평균치는 1.53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다'의 사이에 있었다. 상담활동의 낮은 평균치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교육관심과 실천이 학교나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자녀의 학습과 진로 등의 상담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감소함을 보여준다.

<표 Ⅲ-2> 변수설명과 변수처리

변수명		변수처리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정배경	가구소득	만원단위에서 자연로그	740	5.51	.62	3.00	6.91
	부학력	1:미취학, 2:무학, 3:초졸 4:중졸, 5:고졸, 6:전문대졸 7:4년제대졸, 8:석사, 9:박사	740	5.03	1.18	2	9
	모학력		740	4.68	1.10	1	9
부모관여	교육관심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관측변수: 학업 및 성적, 친구, 학교생활, 생활습관, 고민)	740	3.52	0.63	1.00	5.00
	교육실천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관측변수: 과제확인, 일정관리, 정보교류, 정보수집)	740	2.33	0.71	1.00	4.75
	교육상담	1: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관측변수: 성적,생활,진로)	740	1.53	0.66	1.00	4.67
자녀학습	사교육비	만원단위에서 자연로그	740	12.03	0.83	7.31	14.00
	내신등급	1등급:9, 9등급:1로 역산	740	5.66	1.62	1.00	9.00

이상의 변인으로 구성된 연구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이 모형에서 가정배경은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과 실천 및 상담에 영향을 주며, 자녀교육 관심과 실천은 자녀의 내신성적과 사교육비에 영향을 주는 경로로 설정되었다.



[그림 Ⅲ-2]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 연구 모형

3. 자료분석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이 부모의 자녀교육관여에 미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AMOS 21.0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모형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 앞서 분석자료 정리와 기술통계 및 데이터탐색을 위해 SPSS 19.0 통계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자료분석은 먼저 자녀 수 한 명과 세 명이상 자료를 통합한 자녀통합 연구모형의 확인적요인분석과 타당성검증을 실시했다. 그리고 자녀통합연구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산출했다. 마지막으로, 한자녀 가구와 세자녀 이상 가구 집단을 구분하여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변화와 경로계수 차이 검정을 실시했다.

Ⅳ. 연구 결과

1. 확인적 요인분석

이 연구에 사용되어진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파악하고 변수들의 구성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모형이 아닌 확인적 요인분석의 측정모형을 설정하여 적합성을 확인 하였다.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χ^2=248.074(n=740), DF=84, P=.000 CMIN/DF=2.953, GFI=.956, TLI=.954, CFI=.963, RMSEA=.051의 적합성을 보여 측정모형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측정모형에서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는 Fornell and Larcker(1981)공식을 사용하였다. 신뢰도가 높으면 내적일관성이 높다는 의미로 .7이상이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표 Ⅳ-1>과 같이 제시하였다(배병렬, 2011).

<표 Ⅳ-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 변수	관측 변수	Esti-mate	Stand-ardized	오차 분산	S.E.	C.R.	P	개념 신뢰도
가정배경	가구소득	1.000	.546	.274				.822
	모학력	2.561	.793	.449	.183	14.025	***	
	부학력	3.019	.872	.335	.217	13.893	***	
교육실천	실천1	1.000	.663	.349				.841
	실천2	1.237	.708	.416	.080	15.539	***	
	실천3	1.358	.767	.354	.083	16.356	***	
	실천4	1.253	.712	.416	.080	15.607	***	
교육상담	상담1	1.164	.873	.124	.049	23.923	***	.932
	상담2	1.263	.887	.128	.053	24.055	***	
	상담3	1.000	.764	.210				
교육관심	관심1	1.034	.717	.311	.069	14.966	***	.874
	관심2	.966	.676	.341	.067	14.374	***	
	관심4	1.166	.776	.276	.074	15.709	***	
	관심5	1.024	.712	.313	.069	14.898	***	
	관심6	1.000	.612	.512				

CMIN(χ^2) =248.074(n=740), DF =84, P =.000 CMIN/DF =2.953
GFI =.956, TLI =.954, CFI= .963, RMSEA= .051

이 연구에서 사용되어진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자녀교육실천과 자녀교육관심이 .501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자녀교육상담과 자녀교육관심이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을 이용하였다. AVE는 Hair et al. (2006)의 공식을 사용하였다. 집중타당도는 AVE가 .5 이상이면 집중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판별타당도를 AVE값이 개념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Φ^2)을 상회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판단하였다(배병렬, 2011). <표 Ⅳ-2>와 같이 타당도 분석결과, 이 모형은 집중 타당도와 판별타당도가 확보 되었다고 판단한다.

<표 Ⅳ-2> 부모의 교육관여와 관련된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 행렬

구분	AVE	가정배경	자녀교육 실천	자녀교육상담	자녀교육 관심
가정배경	.526	1			
자녀교육 실천	.509	.410(.168)	1		
자녀교육상담	.711	.232(.054)	.301(.091)	1	
자녀교육 관심	.491	.407(.166)	.501(.251)	.222(.049)	1

※ ( ): 상관의 제곱

2.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

저출산이 부모의 자녀교육관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설정한 연구모형과 수집한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적합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χ^2값은 343.527, p=.000(p<.05)으로 연구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3>). 그리고 표본의 크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도지수인 RMSEA= .54로 수용기준에 근접해 있고, GFI= .947, TLI= .938, CFI= .950으로 수용기준 .9보다 높다는 점에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우종필, 2012; 성태제, 2012).

연구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는 가정배경→교육관심, 가정배경→교육실천, 가정배경→교육상담, 가정배경→사교육, 교육관심→교육실천, 교육관심→교육상담, 교육관심→학업성취도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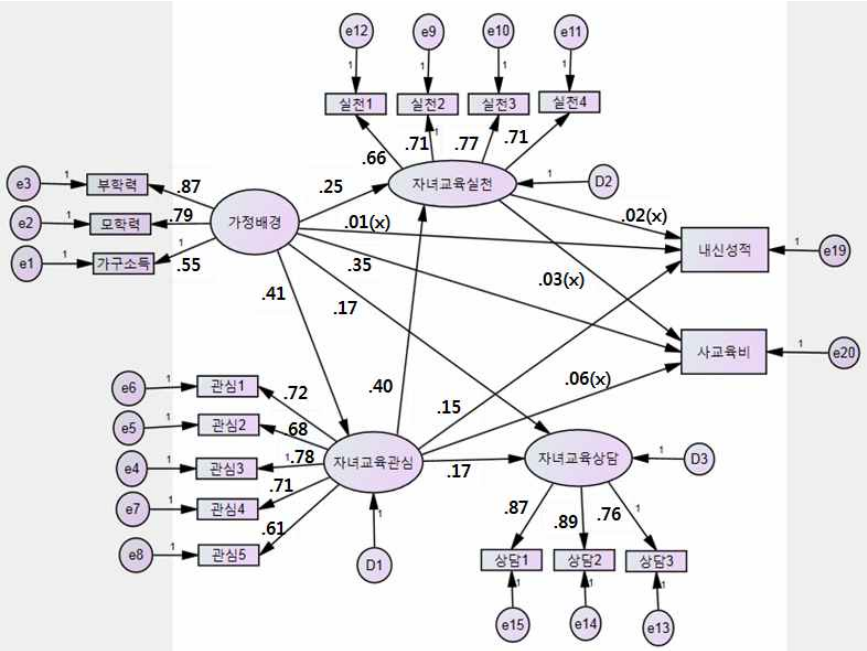
<표 Ⅳ-3>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tandardized	S.E.	C.R.	P
가정배경 --> 교육관심	.648	.410	.082	7.884	***
가정배경 --> 교육실천	.376	.251	.073	5.171	***
가정배경 --> 교육상담	.262	.168	.075	3.511	***
교육관심 --> 교육실천	.384	.404	.050	7.702	***
교육관심 --> 교육상담	.163	.165	.047	3.466	***
교육실천 --> 성적역점수	.074	.024	.160	.464	.643
교육실천 --> ln사교육2	.052	.033	.077	.678	.498
교육관심 --> 성적역점수	.443	.151	.151	2.941	.003
교육관심 --> ln사교육2	.090	.060	.072	1.250	.211
가정배경 --> 성적역점수	.027	.006	.218	.124	.901
가정배경 --> ln사교육2	.834	.353	.116	7.216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1 - Default model)
교육관심= .168, 교육상담= .079, 교육실천= .309, ln사교육2= .158, 성적1_역점수= .028

CMIN(χ^2) =343.527(n=740), DF =110, P =.000, CMIN/DF =3.123
GFI =.947, TLI =.938, CFI= .950, RMSEA= .054

[그림 Ⅳ-1]을 보면,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은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보이는 교육적 관심(경로계수=.648, p=000)과 실천행위(경로계수=.376, p=000), 그리고 자녀교육상담활동(경로계수=.262, p=000)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가정배경은 자녀의 고등학교 내신성적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학력과 경제력보다는 교육환경조성과 학습지원 및 자녀의 학습방법과 태도 등이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에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가정배경은 자녀가 받는 사교육의 비용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경로계수=.834, p=000).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경제력이 사교육투자 수준과 관련이 있고, 학력이 높은 부모의 학교교육 성공경험과 높은 교육열이 자녀의 사교육비에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그림 Ⅳ-1] 자녀 수 통합 연구모형과 경로계수

부모의 자녀교육관심은 자녀교육상담활동(경로계수= .648, p= 000),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실천(경로계수= .648, p= 000), 그리고 자녀의 학업성취도(경로계수= .648, p= 000)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부분의 학습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점, 고3학생 자녀를 둔 상당수의 부모가 자녀의 학습지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찾기 어렵고, 학습지도의 한계가 있는 점,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가정 내 지속적 자녀교육 실천의 곤란함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3학생의 가정과 독립적인 학습성향, 부모의 시간적 여유와 학습지도능력의 한계, 자녀교육 실천의 지속성 여부와 관련지어 보다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한편, 부모의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관심과 실천 행동은 자녀의 사교육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가정에서 자녀교육에 관심을 갖고 교육적 실천행위를 하는 부모가 자녀

의 사교육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배경이 자녀의 사교육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가정에서 관심을 보이거나 교육적 실천행위를 하는 대신 자녀의 사교육에 투자하며 가정에서의 부족한 교육기능을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리하면,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와 시간확보가 없는 상태에서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과 실천만으로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과 같은 가정배경은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관심과 실천, 그리고 상담활동에 영향을 준다. 특히 자녀가 받는 사교육은 부모의 가정에서의 학습지원과 관심과는 독립적으로 부모의 경제력과 학력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저출산과 관련지어볼 때, 저출산에 따른 가구 내 자녀 수가 감소는 가정배경→교육관심, 가정배경→교육상담, 가정배경→교육실천, 가정배경→사교육, 교육관심→교육실천, 교육관심→학업성취도의 경로를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한자녀와 세자녀 이상 집단의 경로계수 차이 검증

한자녀 가구와 세자녀 이상 가구의 구조방정식 경로계수 차이를 다중집단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했다. <표 Ⅳ-3>을 보면, 자녀 수를 구분하지 않은 통합연구모형과 같이 한자녀와 세자녀 가구 집단에서 각각 가정배경→교육관심, 가정배경→교육실천, 가정배경→교육상담, 교육관심→교육실천, 교육관심→학업성취도, 가정배경→사교육의 경로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통합 연구모형과의 차이점은 한자녀 가구에서 부모의 교육관심과 부모의 자녀교육상담활동 그리고 내신성적 사이의 경로가 통계적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자녀이상 집단이 한자녀 집단보다 가정배경이 부모의 자녀교육 실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3> 자녀 수에 따른 모형의 경로계수 변화

경로 구분	집단	Estimate	Standardized	S.E.	C.R.	P
가정배경 -->교육관심	1자녀	.679	.519	.121	5.616	***
	3자녀	.612	.349	.110	5.564	***
가정배경 -->교육실천	1자녀	.224	.165	.112	1.995	.046
	3자녀	.440	.278	.098	4.488	***
가정배경 -->교육상담	1자녀	.227	.184	.113	2.002	.045
	3자녀	.297	.168	.101	2.957	.003
교육관심 -->교육실천	1자녀	.552	.531	.104	5.305	***
	3자녀	.314	.349	.056	5.628	***
교육관심 -->교육상담	1자녀	.138	.147	.088	1.569	.117
	3자녀	.179	.177	.056	3.202	.001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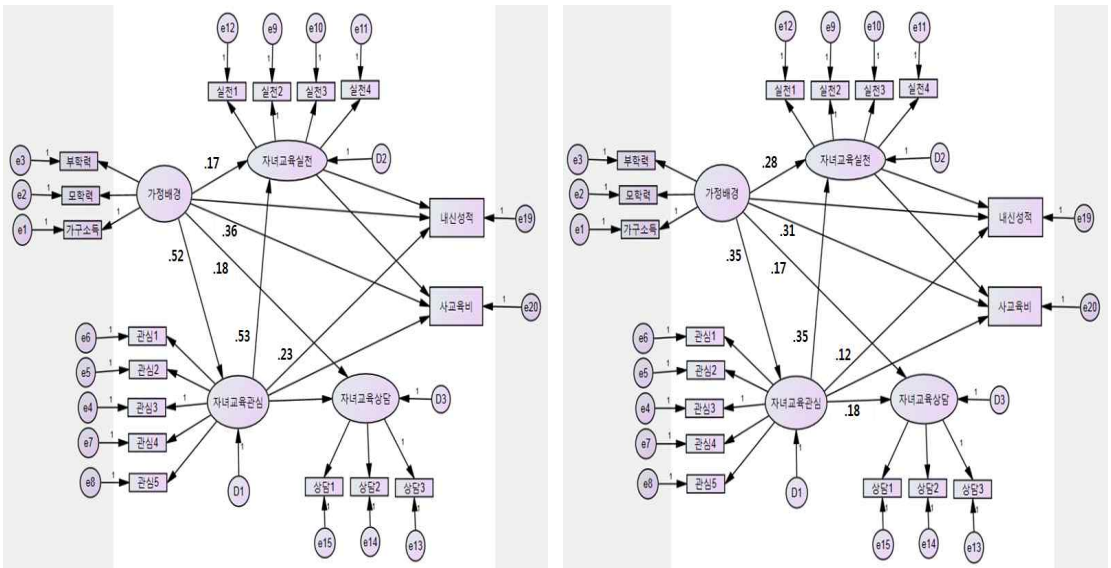
경로 구분	집단	Estimate	Standardized	S.E.	C.R.	P
교육실천 -->성적역점수	1자녀	.157	.069	.229	.686	.493
	3자녀	-.019	-.005	.215	-.086	.931
교육실천 -->ln사교육2	1자녀	.058	.044	.123	.468	.640
	3자녀	.033	.020	.099	.337	.736
교육관심 -->성적역점수	1자녀	.545	.231	.262	2.085	.037
	3자녀	.376	.118	.182	2.063	.039
교육관심 -->ln사교육2	1자녀	.175	.127	.139	1.259	.208
	3자녀	.071	.046	.083	.852	.394
가정배경 -->성적역점수	1자녀	-.030	-.010	.272	-.109	.913
	3자녀	.227	.041	.313	.726	.468
가정배경 -->ln사교육2	1자녀	.653	.363	.154	4.244	***
	3자녀	.834	.311	.160	5.210	***

Squared Multiple Correlations: (1 - Default model)

1자녀(n=208) 교육관심= .269 교육상담= .084 교육실천= .400 ln사교육2= .219 성적1_역점수= .075	3자녀(n=532) 교육관심= .121 교육상담= .080 교육실천= .266 ln사교육2= .115 성적1_역점수= .018

CMIN(χ^2) =524.591(n=740), DF =220, P =.000 CMIN/DF =2.385
GFI =.923, TLI =.936, CFI= .935, RMSEA= .043

[그림 Ⅳ-2]을 보면, 한자녀 집단의 가정배경이 세자녀 이상 집단 보다 가정배경→교육관심, 가정배경→교육상담, 교육관심→교육실천, 교육관심→학업성취도, 가정배경→사교육비의 경로 심이 세자녀가구 모델 및 실천에 미치는 영향력 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자녀 가구(n=208)> <세자녀 이상 가구(n=532)>

[그림 Ⅳ-2] 한자녀 가구와 세자녀 이상 가구의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결과

한자녀와 세자녀이상 가구의 자녀교육관여 수준의 비교는 두 집단의 요인부하량, 공분산, 오차분산의 제약이 없는 형태로 분석을 실시했다. 따라서 경로계수에 의한 영향력의 상대적 차이는 비교가능하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두 집단의 경로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우종필, 2012:412-421)

앞서 언급한 대로,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결과를 보면, 가정배경→교육실천 경로를 제외하고 한자녀 가구 모형이 세자녀 가구모형보다 경로계수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집단 간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지 확인하기 위해 경로계수 차이검정을 실시했다. 경로계수가 유의미하다고 판정하는 기준은모수치 차이 검정 값이 ±1.965 이상이어야 한다(문수백, 2012). <표 Ⅳ-4>의 경로계수 차이 검정 결과를 보면, 한자녀 가구 집단과 세자녀 이상 가구에서 교육관심→교육실천(-2.016)경로를 제외하고 모든 경로계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Ⅳ-4> 경로계수 차이 검정 결과

경로		비교 집단		모수차이 검증 (임계치: ±1.965) (p< .05)
		한자녀 가구	세자녀 이상 가구	
가정배경→	교육관심	.519	.349	-0.413
가정배경→	교육실천	.165	.278	1.445
가정배경→	교육상담	.184	.168	0.467
가정배경→	사교육비	363	311	0.818
교육관심→	교육실천	.531	.349	-2.016
교육관심→	교육상담	.117	.001	0.385

한자녀 가구와 세자녀 이상 가구 사이에 가정배경→교육관심, 가정배경→교육실천, 가정배경→교육상담의 차이가 없음은 자녀 수와 질의 대체관계를 주장하는 선행연구에 근거한 예상과 배치되는 결과이다[11]. 한국 사회에서 자녀 수가 줄어도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 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이유를 추정해 보면, 개발도상국과 달리 우리 사회가 대체로 가구당 세 명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고, 우리 사회의 경제적 풍요와 치열한 사회지위경쟁에 의해 이미 자녀들이 부모의 높은 교육열과 높은 가구소득에 의한 교육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한편, 두 집단 간에 교육관심→교육실천(-2.016)의 경로계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은 한자녀 가구의 부모와 세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 사이에서 자녀교육 관심이 교육적 실천으로 전이되는 수준에는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녀교육 관심이 교육실천으로 이행되는

11) 한자녀 가구와 세자녀이상 가구 사이에서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는 분석대상 선정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분석에 활용된 자료가 2007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부모를 대상으로 한 횡단면 자료로 대학입시를 1년 앞둔 부모의 교육관여 몰입시기에 부모의 교육관심과 실천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자녀가구와 세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교육관여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유년기부터 청소년기에 걸쳐 부모의 지속적 교육관여 수준을 정확히 측정한 자료분석 결과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수준의 차이는 한 가구의 자녀 수가 감소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관심수준이 감소한다고 볼 수 없지만, 자녀의 학습과제를 확인해 주고, 일정을 관리하며 자녀학습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교류하는 교육실천행위가 강화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이 실천으로 전이될 가능성의 차이는 향후 어떤 교육적 파급효과를 낼 것인지 새롭게 주목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V. 결 론

이 연구는 자녀 수 감소의 교육적 파급효과를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의 관점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가정배경이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와 자녀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리고 한자녀 가구와 세자녀 이상 가구 사이에 가정배경이 부모의 자녀 관여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가정배경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 및 상담에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가정배경이 부모의 자녀교육관여와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저출산에 따라 자녀 수가 감소할 경우, 교육적 파급효과의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가정배경은 자녀교육 실천에 미치는 영향보다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이 우리사회의 일반적 현상이 될 경우, 학부모는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관심과 실천 대신 사교육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높은 자녀교육 관심은 가정에서 교육적 실천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상담 활동과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었으나 사교육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의 성적과 학업, 교우관계,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자녀의 학습태도와 노력에 영향을 주어 학업성적향상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이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은 부모의 관심과 자녀의 학습성향 그리고 성적과의 상호구조적 관계에서 재분석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부모의 자녀교육 실천행위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사교육비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의 부모의 자녀교육 실천행위 강화만으로 자녀의 학업성취 향상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부모의 교육실천행위의 지속성과 자녀의 학습동기 및 성적의 상호관계에서 재분석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한자녀 가구와 세자녀 이상 가구에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 및 상담의 수준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부터 자녀 수가 감소하더라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관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학업성적이 낮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교육관여와 초·중학교 시기부터 가정에서 지속적인 교육관여를 해 온 학부모를 구분할 경우,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교육관여 영향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저출산과 관련하여 주목할 연구 결과는 한자녀 가구의 부모가 세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보다 자녀교육 관심을 가정에서 교육적으로 실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 수가 감소해도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그 관심이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실천으로 발현될 가능성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자녀 수에 따른 부모의 자녀교육 관심이 실천으로 전이될 가능성의 차이는 향후 어떤 교육적 파급효과를 낼 것인지 새롭게 주목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에서 이 연구는 유년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는 종단연구자료를 분석하여 부모의 자녀교육 관여가 자녀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된 부모의 자녀교육관여 수준이 자녀의 학습성취 뿐만 아니라 학습흥미와 자존감 등의 정의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창희・현보훈(2012). 가족내 자녀 수가 자녀에 대한 사교육 투자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35(1), 111-136.

김선숙・고미선(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18(3), 5-29.

김준홍・배상률・장근영(2012). 한국 가족변화의 특징과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한민국정부(2011).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

보건복지부(2011). 2011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보고서.

문수백 (2012). **구조방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배병렬(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성태제 (2012). **SPSS / AMOS를 이용한 알기쉬운 통계분석.** 서울: 학지사.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아카데미.

전현배・정유선(2009). 자녀 수와 자녀 교육수준의 대체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32(8), 1-25.

최돈민, 윤여각, 현영섭, 강대중, 이세정(2013). 가족구조가 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1(4), 120-153.

최은영・박영실(2009).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 2009년 하반기 연구보고서(제3권), 통계청.

Hanushek E.A.(1992). The Tradeoff between Child Quantity and Quality.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1), 84-117.

Anderson, T, M. & Kohler, H, P.(2012) Education Fever and the East Asian Fertility Puzzle: A Case Study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Population Studies Cent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Becker G. S. & Lewis H. G.(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279-288

Davis-Kean, P. E.(2005). The Influence of Parent Education and Family Income on Child Achievement: The Indirect Role of Parental Expectations and the Home Environ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294-304.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2008). The Impact of Parental Involvement on Children's Education.

Lvay, V. & Sand, E.(2012) The Friends Factor: How Students' Social Networks Affect Their Academic Achievement and Well-Being?. NBER Working Paper No. 18430.

Maralani, V.(2008).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ize and educational attainment over the course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from Indonesia. **Demography,** 45(3), 693-717.

Michigan Department of Education(2001). What research says about parent involvement in children's education(In relation to Academic Achievement).

Abstract

The ripple effects of Low-birthrate to Education. (Focusing on Parental involvement at home)

Ban, sang-jin(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ung sung-suk(Chonbuk National University)
Cho, young-jae(Chonbuk National University)
Kang, eun-suk(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ripple effects of Low birthrate is likely to be seen in the parental involvement when thier children are educated at home. And it is said that the parental involvement has a significant effect to their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and their school lif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set to analyze the educational effects of Low-birthrate to the parental involve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 background has an effect to their interest, behavior and consultation with children's education. Second, it is likely that the parent interest is transferred to their educational behavior at home. Third, in terms of Low-birthrate, remarkable results were obtained that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from parent background to parental involvement have no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one-child parent and over-three children parent. However, it was seen that the possibility of one-child parent's interest leading to educational behavior is higher than over-three children parent's.

In relation to Low-birthrate, this result has implications. First, the level of parents' interest to children's education does not easily change, although the number of children decrease. Second, Low-birthrate is likely to be a ripple effect to the parental involvement by creating a different influence of the path from parents' educational interest to parents' behavior at home.

Key words: Low-birthrate, Parental involvement, Parent interest, Parent behavior